

[보도자료] 쿠팡, 정부와 손잡고 'AI 유니콘' 만든다 750억 투자해 '제2의 쿠팡' 육성

2025. 9. 11.

- 정부의 AI 육성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AI기술기반 혁신 선도
- 모태펀드 매칭으로 1500억 규모 펀드 조성 AI스타트업 등 14개사에 100억원 이상 투자계획
- “'AI 3대 강국' 목표 발맞춰 AI산업 이끌 유니콘 기업 육성 및 지원”

2025. 09. 11. 서울 - 국내 1호 유니콘 기업인 쿠팡이 정부와 손잡고 AI 기술기반의 혁신기업 발굴 및 투자에 적극 나선다.

쿠팡은 11일 중소벤처기업부가 AI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 추진하는 '넥스트 유니콘 프로젝트(Next Unicorn Project)'의 알파코리아소버린AI펀드(스케일업 AI융합분야)에 750억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탈사 SBVA가 운영사(GP)로 참여하는 해당 펀드에는 쿠팡이 750억원을 출자하고, 모태펀드가 이에 매칭하여 750억원을 출자한다. 15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AI기술기반의 스타트업과 성장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방식이다.

쿠팡의 이번 투자 결정은 국내 첫 유니콘 기업인 쿠팡이 정부의 AI 육성정책에 협력하고 AI기술기반의 혁신을 선도하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상생에 적극 참여한다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다. 지난 2010년 설립 이후 미국 뉴욕증시(NYSE)에 상장한 경험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 AI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2의 쿠팡'을 육성한다는 취지이다.

◇ “AI 강국 실현 등 정부의 AI 집중 육성정책에 발맞춰”

쿠팡은 정부의 AI 육성정책에 발맞춰 새로운 유니콘을 육성하기 위해 이번 펀드를 통해 AI 스타트업과 성장기업 14개사에 평균 100억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나아가 쿠팡은 단순한 자본 투자를 넘어서 쿠팡의 AI 노하우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향후 투자를 받을 스타트업과 성장기업이 기술혁신과 비즈니스 성장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시장 진출지원 등을 통해 가치를 높이도록 가교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 AI기술기반의 혁신 선도

쿠팡은 테크 기반의 혁신기업으로 AI기술 등 보유 기술특허만 2100개('24년말 누적 기준)에 달한다. 2019년(160개) 대비 13배 늘어난 수치로, 연구개발(R&D)에 집중 투자한 결과다. AI기술 혁신을 바탕으로 쿠팡은 올 초 메타, 알파벳 등 글로벌 테크기업과 함께 미국 특허분석기업 '렉시스넥시스'가 선정한 글로벌 100대 혁신기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쿠팡은 앞으로 데이터센터 구축 등 물류 및 고객센터서비스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한 AI기술기반의 혁신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나아가 국내 1호 유니콘기업의 명성에 걸맞은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그간 축적된 혁신 노하우와 신사업 발굴, 기존 사업과의 융합 등을 통해 AI기술기반 스타트업과 창의적인 지역 청년들의 창업지원과 투자를 확대할 방침이다.

◇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 및 지역투자 확대

쿠팡은 AI기반의 물류혁신 모델 구축을 위해 대규모 지역투자를 지속해왔다. 쿠팡은 그동안 수천만건의 상품 주문을 AI와 머신러닝 기술로 예측해 운영의 탁월성을 높여왔고 이를 바탕으로 독자적인 엔드투엔드(end-to-end) 풀필먼트 및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해 로켓배송·당일배송 등을 해왔다. 또 지난 2022년 대만 시장에 진출, 현지 로켓배송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해외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현재 쿠팡은 지역중소상인을 위한 특별기획전, 대만 K-중기 브랜드전, 중소상공인에 물류시스템 개방,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나아가 올해 누적판매 3조원을 달성한 착한상점을 확대 개편한 ‘착한상점 2.0’을 통해 지역중소상인의 매출확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테크기반의 혁신기업으로 과감한 자본투자를 통해 기존에 없는 혁신을 만들어 정부의 AI 창업벤처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한편, 지역 일자리 창출에 역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이번 투자는 쿠팡이 우리나라 1호 유니콘 기업으로서 정부의 AI 3대 강국 실현 기조에 발맞춰 제2의 쿠팡을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며 “그간 축적된 AI 물류혁신 노하우를 바탕으로 시스템타입업 및 성장기업들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과 투자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쿠팡은 테크 기반의 혁신 기업으로서 글로벌 시장과 경쟁할 수 있는 AI 기술기반의 물류 및 고객서비스 혁신에 속도를 내고 지역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BVA 소개

SBVA는 2000년 한국에 설립돼 루닛, 업스테이지, 하이퍼엑셀 등 국내외 다양한 스타트업에 투자해 오고 있다. 현재 약 2.5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 세계 100여 개가 넘는 포트폴리오 회사를 육성하며 글로벌 투자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